

보도해명자료

KDI 홍보팀 958-4030 press@kdi.re.kr

2013. 2. 18.

제 목: 경향신문 2월 18일자, 「정부, 저축은 뱅크런 막을 때 현오석 부부는 2억원 빼갔다」 제하 보도 관련 해명

경향신문은 2.18(월) “정부, 저축은 뱅크런 막을 때 현오석 부부는 2억원 빼갔다” 제하의 보도에서 “현 내정자 부부는... 솔로몬저축은행과 경기솔로몬저축은행 계좌 4개에 5000만원씩 모두 2억원을 예금하고 있었다. 하지만 2011년 말에는 이 돈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” 라고 보도했으나, 이와 관련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관련 보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2011년 솔로몬저축은행, 경기솔로몬저축은행에서 2억원을 출금한 것은 사실이나, 당시 저축은행사태와 관련 없이 예금 만기도래에 따라 출금(2개구좌: 2011년 4월 만기, 1개 구좌: 2011년 10월 만기), 본인 소유 반포아파트 구매(2011년 7월) 자금을 충당키 위해 1개 구좌(2011년 7월)를 출금한 것임.
- 참고로 솔로몬저축은행과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은 2012년 5월에 영업정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문의: 장혁순 KDI 대외협력실장